

여학생 청소년들의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

이창식¹, 유은경², 장하영^{2*}

¹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²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학생

The Moder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Between Female Adolescents'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School Adaptation

Chang-Seek Lee¹, Eun-Kyung Ryu², Ha-Young Jang^{2*}

¹Professor, Dept. of Health, Counseling and Welfare, Hanseo University

²Doctoral Student, Dept. of Child-Adolescent Counseling and Psychology,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학생 청소년들의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D시의 여학생 청소년 4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차이검정, 상관분석, 조절효과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은 부모가 맞벌이 여부와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과 학교적응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가정학대는 다른 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가정학대와 학교적응 사이에서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여학생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과 연령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가정학대 경험, 학교적응, 성장 마인드셋, 청소년,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between female adolescents'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school adaptat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485 female adolescent girls in D city, Chungcheongnam-do, an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for differences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chool adaptation differed according to parents' earning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 Second, growth mindset and school adapta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ut home abus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other variables. Third, the result of regression effect of moderating effect showed that the growth mindset for personality had a moderating effect. Finally, based on this study, we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school life of female students and teenagers. Specifically, it was suggested to consider the growth mindset and age for personality.

Key Words : Domestic abuse experience, School adaptation, Growth mindset,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Ha-Young Jang(besof@hanmail.net.)

Received August 14,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20,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적응 문제는 그들의 자존감 등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기도 하지만 가족 특성, 또래관계, 성적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조성될 수 있다[1].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경험의 미비로 인하여 학교적응 문제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처 방법과 능력이 부족하다[2]. 더군다나 학교 적응문제는 가정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상호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학교적응 문제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정도와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교사와 교우관계에 더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 즉, 여학생들은 인적 관계가 잘 정립될수록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학교생활 자체에 가치를 두어 궁극적으로 학교적응을 높여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친밀감 및 정서적 안정 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하는 정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문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비중이 높은 가정환경은 그들의 가치관과 외부 환경 적응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5]. 청소년들은 가정환경과 부모들의 양육방식을 통하여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체계는 여러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그들의 가치와 행동을 결정하는 준거들의 역할을 하게 된다[6]. 또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7].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크게 합리-비합리,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애정-적대 등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8]. 이러한 차원 중 본 연구는 애정-적대 차원에 관심을 두었는데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애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들은 긍정적인 인성을 형성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학대는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에게 대인적 민감성을 보여 학교적응 문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가정환경 중 부정적인 요인으로 가족간의 불화, 결손가정, 부모의 역기능적 행동, 가정학대 등의 폐해에 관한 연구가 다수 발견된다[5,9]. 가정학대는 시대와 무관하게 정해진 행동이라 할 수는 없으며 시대적 흐름과 사회 계층, 법규, 문화 차이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게다가 연구자의 주관과 목적에 따

라 그 기준 또한 모호하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정학대는 가족차원, 지역공동체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하다고 보아야 한다[10].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용인하는 문화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소유의식 등의 왜곡된 문화적 가치관이 가정학대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학대는 피해자로 하여금 매사에 수동적 태도를 보이도록 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과 조화 유지를 어렵게 한다[11]. 따라서 가정학대를 겪게 되는 자녀들은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불만족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와 심리는 다시 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유성경[12]은 이를 '적응유연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다양한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고 이전의 적응으로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들은 이러한 능력이 저하되어 학교에 대한 부적응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상술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의 가정학대 경험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부정적 환경과 경험으로부터 행동과 적응 문제를 정상적으로 이끌어내는 보호요인이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1,6]. 이러한 요인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자가 성장 마인드셋이다. 마인드셋이란 자신의 다양한 능력에 대한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13]. 이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은 노력과 학습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낸다[13].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목표와 성취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난이도 높은 과제 선호 및 끊임없는 도전적 자세를 보인다. 이러한 성장 마인드셋은 초기에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 영역에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학생, 직장인들의 학업과 체육활동, 양육태도, 창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영향력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 마인드셋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학대로 인하여 겪게 되는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가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는데 방어적 역할을 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문제에서 성장 마인드셋의 역할을 파악하였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학교부적응 연구는 주로 아동

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학교부적응 문제는 남학생 청소년에 비하여 여학생 청소년에서 심각하다[3,4].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실태와 선행연구들을 모두 고려하여 청소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다. 즉, 청소년 여학생들의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가정 학대경험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성장 마인드셋은 조절하는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학대로 인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가정학대 경험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6,7]와 성장 마인드셋 등의 심리적 요소가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13]를 종합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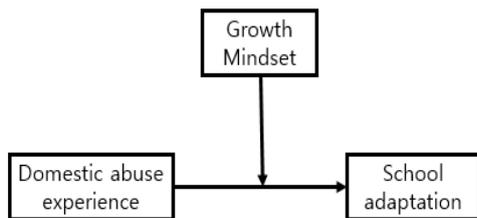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D시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13명의 여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8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학교급 분포는 중학생이 264명(58.9%), 고등학생이 184명(41.1%)으로 중학생이 많았으며, 이들

의 연령 범위는 13세~19세로 평균 연령은 15.1세(SD=1.60)였다. 한편, 가족의 소득수준은 ‘낮음’이 49명(10.6%), ‘보통’이 250명(54.1%), ‘높음’이 163명(35.3%)로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높음’, ‘낮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맞벌이의 경우 275명(59.7%), 외벌이의 경우 186명(40.3%)으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끝으로 학업성취도를 보면 ‘상’은 82명(17.6%), ‘중’은 237명(50.7%), ‘하’는 148명(31.7%)으로 ‘중’이 가장 많았고, ‘하’, ‘상’ 순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가정학대 경험

가정학대 경험은 Bae[14]가 사용한 가정폭력경험(family violence experienc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정폭력경험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경험한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미한 신체적 폭력 및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 가정폭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학대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0으로 나타났다.

2.3.2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은 개인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중 어느 정도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Carol Dweck[13]이 개발하고 연구자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지능과 성격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총 문항의 수는 8문항이며, 각 하위요인별로 지능과 관련하여 2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2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격과 관련하여 4개의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6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2개의 부정적인 문항을 역산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성장 마인드셋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지능의 경우 .731로 나타났고, 성격의 경우 .654로 나타났다.

2.3.3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15]의 학교적

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본 연구대상에 맞게 학교규칙과 관련된 하위척도를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학교규칙과 관련된 문항은 총 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로써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64로 나타났다.

2.3.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학교급, 가족의 소득수준, 맞벌이 여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학대, 성장마인드셋,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Duncan/Dunnett T3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지능과 성격 하위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Table 1. School Adapta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85>

		School Adaptation		
		N.	Mean(SD)	t, F (Duncan)
School level	Middle	263	3.71(.71)	-1.877 (p=.061)
	High	184	3.83(.59)	
Family Income level	Low	49	3.78(.64)	1.200 (p=.301)
	Middle	250	3.81(.61)	
Dual income	Yes	274	3.84(.64)	2.423*
	No	186	3.69(.71)	
Academic achievement	High	81	4.05(.64)	14.343*** A
	Middle	237	3.80(.55)	
	Low	148	3.57(.70)	

* p<.05, *** p<.001

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423, p<.05),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상’, ‘중’, ‘하’ 순으로 나타났다(F=14.343, p<.001). 그러나 학교급(t=-1.877, p=.061), 부모의 소득수준(F=1.200, p=.301)에 따라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정학대는 지능에 대한 성장마인드셋, 성격에 대한 성장마인드셋 및 학교생활적응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1), 지능에 대한 성장마인드셋과 성격에 대한 성장마인드셋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1). 이 중 지능에 대한 성장마인드셋과 성격에 대한 성장마인드셋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r=.571, p<.01)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가정학대와 학교생활적응(r=-.212, p<.01), 성격에 대한 성장마인드셋과 학교생활적응(r=.160, p<.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관계수의 범위는 -.074 ~ .571로, 주요 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1. Domestic abuse experience		1			
Growth Mindset	2. Intelligence	-.087**	1		
	3. Personality	-.074*	.571**	1	
4. School adaptation		-.212**	.145**	.160**	1
Mean		1.32	3.56	3.38	3.84
SD		.53	.80	.76	.63

* p<.05, ** P<.01

3.3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

1단계에서는 여학생의 가정학대 경험 여부, 2단계에서는 지능에 대한 성장마인드셋과 성격에 대한 성장마인드셋을 각각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지능에 대한 성장마인드셋과 성격에 대한 성장마인드셋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3.1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성장 마인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of Person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School Adaptation

	R	R ²	ΔR ²	β	t
Domestic abuse experience	.231	.053	.051	-.231	-5.195***
Domestic abuse experience Growth mindset - Personality	.291	.085	.081	-.212 .179	-4.841*** 4.076***
Domestic abuse experience Growth mindset - Personality Domestic abuse experience × Growth mindset - Personality	.304	.092	.087	-.246 .173 -.092	-5.244*** 3.953*** -1.984*

* $p < .05$, *** $P < .001$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of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Abuse Experience and School Adaptation

	R	R ²	ΔR ²	β	t
Domestic abuse experience	.231	.053	.051	-.231	-5.195***
Domestic abuse experience Growth mindset - Intelligence	.266	.071	.067	-.222 .133	-5.037*** 3.010**
Domestic abuse experience Growth mindset - Intelligence Domestic abuse experience × Growth mindset - Intelligence	.266	.071	.065	-.218 .133 -.014	-4.703*** 3.006** .298

** $p < .01$, *** $P < .001$

드셋의 하위변인인 성격에 대한 상호작용항의 영향력($\beta = -.092, p < .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여학생의 가정학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 [16]을 실시한 결과 Fig. 2와 같이 나타났으며, 그래프를 살펴보면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가정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저하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3.3.2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지능에 대한 성장마인드셋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4, p > .05$).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검정 결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인 경우가 외벌이인 경우보다 학교적응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데 그 이유는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동들은 청소년에 비하여 발달 단계상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심리적 독립감 등의 성숙이 덜 이루어졌다[17]. 따라서 이들은 보호자의 도움을 얻어 행동과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동들은 부모의 도움을 얻기 어렵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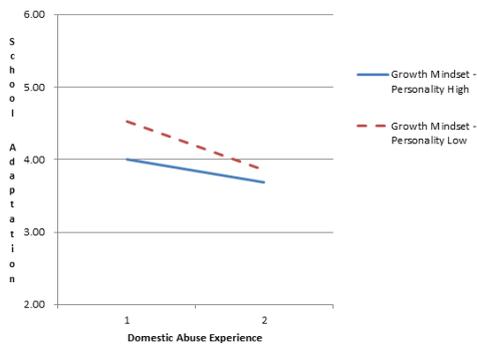


Fig. 2. Graph of grouping effects of growth mindset of personality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18]. 그러나 청소년기는 본격적으로 자아존중감, 심리적 독립감이 성장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들에 대한 엄격한 감독은 오히려 역기능적 역할을 하여 스트레스, 학교부적응, 청소년비행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자녀의 발달 연령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19].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일 경우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신념과 학교 구성원 사이에서의 공동체의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러한 신념과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학교적응 가능성을 높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은 그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학교생활 적응은 가정학대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장 마인드셋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다수 밝혀졌다[11,13]. 특히 가정학대는 청소년들에게 대부분의 변수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9].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는 가정 내에서 겪게 되는 가정학대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정학대의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방임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겪는 부모의 무관심은 자녀들의 지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습결핍을 일으켜 학업성취도를 불충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성취도는 학교부적응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모의 방임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성장 마인드셋 고집단이 저집단에 비하여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 효과와 맥락적으로 일치하고 있다[13]. 그러나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보다 정서적 태도를 보이고 정서지능이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과 밀접한 변인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서지능이란 일종의 사회지능으로서 정서 및 이와 관련된 지식을 해석,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0]. 이러한 능력은 한 개인의 타인과의

관계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 따라서 가정학대 등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기인되는 부정적 행동을 낮추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서지능은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는 태도 면에서 지능보다는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에 가깝다. 따라서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은 조절효과를 보여 교우관계 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적응 프로그램은 성장 마인드셋, 특히 성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학교적응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는 그 편차가 크다. 따라서 여학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교육은 연령에 적합한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 표집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국적 단위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전국적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여학생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차후에는 남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호 비교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절변수로 성장 마인드셋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근래에는 Grit 등 성장 마인드셋과 밀접한 변수가 다수 규명되고 있다. 차후에는 이러한 변수들의 조절효과를 다루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T. Kim. (2015). The Effects of Perceived School Environment on School Resilience: A Comparison between Poor and Non-poor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6(1), 269-291.
DOI : 10.14816/sky.2015.26.1.269
- [2] H. H. Lee. (2017). Analysis of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Immigrant Youths: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59-70.
DOI : 10.14400/JDC.2017.15.12.59
- [3] H. J. Park, N. M. Hong & I. J. Jung. (2014). Mediating Effects of Parent, Teacher and Peer Attachment in the Influence of Neglect and Abus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Youth Welfare*, 16(4), 319-346.
- [4] Y. O. Lee. (2007).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and Academic Motiv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27(2), 87-119.
- [5] S. Y. Lee. (2012).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y, Academic Stress and Mental Heal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1), 117-145.

[6] B. D. Lee. (2018). The Universality of the Moral Law and the Relativity of Human Value Systems. *Philosophical Analysis*, 39, 29-56.

[7] S. A. Yoon. (2016).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Life Goal and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Problem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 909-932.

[8] Y. H. Choi.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 of Parents Perceived by Female Students and Sex-role Identity on Attitude Toward Science*.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9] S. J. Kim, M. S. Kim & S. H. Yeo. (2016). The Relation of Resilie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chool Adapt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of Broken Fami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525-535. DOI : 10.14400/JDC.2016.14.9.525

[10] G. S. Pyo. (2000). *Child and Youth Welfare*, Seoul : NaNam Publishing.

[11] C. K. Lee & H. R. Yang.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Child, Teacher-Student and Peer Attachm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Neglect,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Welfare*, 19(1), 29-55. DOI : 10.19034/KAYW.2017.19.1.02

[12] S. K. Yoo. (1999).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Adaptive Flexibility Developm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7(1), 56-63.

[13] C. S. Dweck. (2008).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hiladelphia, Pennsylvania : Routledge Press.

[14] M. H. Bae. (2013). *A Study of Predictive Model about Offender, Victim, and Bystander on Adolescents School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Kyungki University, Suwon.

[15] A. Y. Kim. (2002). Study on Standardization of Academic Motivation Scale. *Educational Evaluation Research*, 15(1), 157-184.

[16] I. S. Aiken &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 Sage.

[17] K. H. Kim. (2015). The effect of poverty on the school adjust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omparisons between Child's Developmental Stag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4), 227-242.

[18] M. J. Kim. (2006). Relationships Between Child'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al Satisfaction with Dual Income Famil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2), 15-37.

[19] J. A. Kim. (2016).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ts on the Parenting attitud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2), 303-326.

[20] Y. A. Kim. (2009). *The Effects of Reading-aloud Activity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이 창 식 (Chang-Seek Lee)

[장학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 1991년 4월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D.)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보건 상담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교육, 기부
- E-Mail : lee1246@hanmail.net

유 은 경 (Eun-Kyung Ryu)

[장학원]



- 2018년 2월 : 청운대학교 컴퓨터공학 (이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 청소년상담심리학과(박사 과정 학생)
- 관심분야 : 상담, 심리, 인권
- E-Mail : yek0444@hanmail.net

장 하 영 (Ha-Young Jang)

[장학원]



- 2015년 8월 : 청운대학교 응용화학 (이학석사)
- 2018년 8월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박사 졸업
- 2018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동 청소년상담심리학과(박사 과정 학생)
- 관심분야 : 다문화, 기부, 평생교육, 상담심리

· E-Mail : besof@hanmail.net